

고려신문

고려신문

1 (1) 2015년 1월 22일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니콜라이포트로비치 김은 우수리스크에서 유명한 사업가이자, 우수리스크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의지도자이다. 유한책임회사 ‘드루즈바’의 합작자로서 목재가공공장, 가



구공장, 신발제조공장, 대규모 농장(150개가 넘는 온실과 돈사) 및 자동차 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다. 공연단‘아리랑’과 (ITF소

속)태권도 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드루즈바’는 오직 재정적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니콜라이 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겸손하고 말수가 적지만 모든 체험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한국무용 앙상블 “아리랑”의 단원들은 공연을 앞두고는 니콜라이페트로비치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매우 거칠어 보인다. 그러나 우수리스크 출신의 무용수들이 그들의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김은 더 이상 스스로 자제하지 않는다. 무용수들의 성공적 공

연을 매우 뜨겁고도 진솔하게 축하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가 그 순간을 위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할 수 있다! 우수리스크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의 자랑인 앙상블 “아리랑”은 당연히 고도의 전문가 수준에서 공연을 해야 할 만큼 그토록 높게 발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민족무용’ 출전 지명권을 가진) “우트렌나 야즈베즈다(새벽별)”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그랑프리는 모범적 앙상블과 공훈 독립예술창작단이라는 호칭을 가진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 사회 활동가인 니콜라이페트로비치 씨는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우수리스크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의 첫 번째 회장이 아닙니다. 저 이전에 예를 들면 제 형 미하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제 선임자들은 훌륭한 토대를 구축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이 직을 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는 매우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높은 전문가적 수준에서 해 내고 있습니다. 속담에 독불장군은 없다 그러죠. 지출된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 외에도 정신적 풍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무엇이건 시작을 하면, 그리고 만약 무엇인가 이루

어진다면 막대한 정신적 만족을 경험하게 되죠.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발로자 김과 데니스 김 등 두 명의 태권도 선수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1999년과 2006년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치 빠른 웃음을 지은 니콜라이페트로비치 씨가 이렇게 부연했다.

- 저는 6월 14일에 ‘화화 한국 전통은 무엇을 올해의 지도자’ 상을 받기 위해 소치에 갈 겁니다. 그런 기쁨이 겨우 13만 루블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기금으로부터 유사한 제안을 한 해에도 여러 차례 받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수된 훈장들은 정신과 마음 그 어떤 면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이페트로비치 씨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메달 ‘대조국 공훈2등 훈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훈장은 러시아에서 고려인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 그의 다년간의 생산적 활동을 기린 것이다.

니콜라이페트로비치 씨는 전 러시아 사회위원회가 수여한 포상인 ‘(가

화와 한국 전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비록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지만, 멘탈로 볼 때 저는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역시 연해주처럼 다민족 국가입니다. 당신께서는 매우 단순한 문제이겠으나, 좋은 예입니다. 카자흐 민족은 베시바르막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그 요리를 할 줄 압니다. 독일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그리고 고려인 모두 요리할 줄 알죠. 그런데 반대로 카자흐 사람들 역시 러시아 음식과 고려인 음식을 다 요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마도 귀하께서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各民族들의 요리 중 최고의 것을 잘 드실 거라 봅니다.



족과 전통’으로 명명된 공훈’이라는 은메달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오늘의 이 기념일에 연방소비에트 홀에는 배우 유리 솔무용수 이고리모시예프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 니콜라이페트로비치 씨 개인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러시아 문

화를 잘 드실 거라 봅니다. 사실릭, 라바시 등은 카프카즈 요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음식이라고 하는 보르시는 러시아에서 더 즐겨 요리합니다.

문화에서도 같습니다. 각 문화에서 최고의 것을 취한다면 사는 게 훨씬 흥미로운 것입니다.

게오르기술다트킨, 우수리스크

고려신문

한글판의 편집인: 김 발레리아
번역과 감수: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
구원 김종현, 윤상원
기자과 디자인: 김 이리나

우정의 길을 지나며

고려인의 자발적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자동차챌리“러시아-한국 2014”가 우수리스크를 관통하고 지나갔다. 자

동차챌리의 참가자들은 반갑게 맞이했으며, 우수리스크 시의회 의장 니콜라이 루디, 대한민

국 이양구 총영사,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

에 참석했다. 언론인들은 모든 점에 관심을 보였다. 즉참가자들이챌리를 하면서 무엇을 예상했었고 무엇을 목격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러시아의 수많은 도시에서는 참가자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우수리스크 시의회 의장 니콜라이 루디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다

음과 같이 언급했다.

“지금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의 사람들 사이에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호존중과 솔직함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스스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손님으로 교류하고,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사는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가까워지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 항상 공동의 언어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챌리팀의 단장인 모스크바주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에르네스트 김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안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에게 자신의 인종적 고향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수리스크시 주민들이 우리 계획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욱 따뜻하고도 정성스럽게 우리를 반겨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자동차챌리가 사업, 학술, 문화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 협력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수리스크의 주민들은 자동차챌리의 여정이 잘 이루어지고, 우수리스크에 대한 선명한 인상과 좋은 감정이 남기를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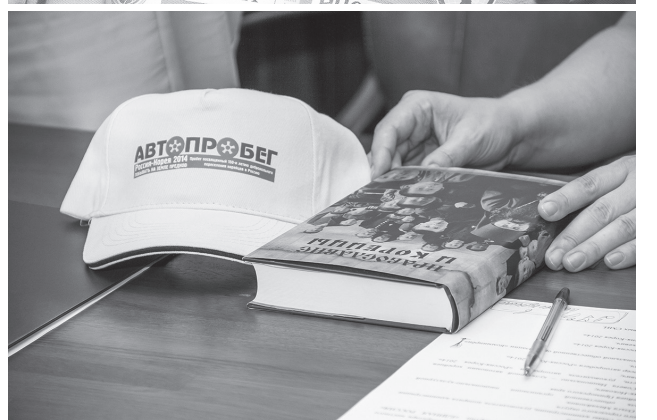
동차챌리팀과의 만남의 행사가 8월 5일 중앙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자동차챌리는 러시아,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의 자발적인 사명에 의해 성사되었다. 참가자들 중에는 러시아 사회 활동가, 정치인과 사업가, 문화·스포츠·관광의 분야 대표들이 있었다. 또한 자동차챌리의 외국인 참가자 중에서는 독일, 한국, 미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대표들도 있었다. 우수리스크에서는자

치회 회장 니콜라이 김의 환영사가 있었다.

니콜라이 루디는 자신의 환영사에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거리를 극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국제 우호, 화합 그리고 협동이라는 이념의 전도자입니다.”라는 말로 자동차챌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시 소재 예술창작단체들의 공연이 만남의 행사를 장식해 주었다. 다음날 자동차챌리 참가자들은 현지 언론 매체들과의 기자회견



우수리스크에서의 고려인디아스포라 150주년 기념식

3월 19일 우수리스크 어린이예술학교는 기념과 축제의 분위기였다.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했다.

정확히 150년 전 러시아 고려인들의 선조들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를 두 번째 조국으로 삼았다. 시간이 흘러 이제 고

우수리스크고려인디아스포라를 경하했다. 그들은 양국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 강화와 생산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원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축하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두 문화가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

올린 앙상블 “야상곡”, 프로타소바의 지휘하에 러시아 민요 “아가씨들아 계곡에 가자!”를 노래한 민속 앙상블 “페레즈본”, 리사예바의 지휘하에 실행된 훌륭한 무용 앙상블 “탈리스만”의 발레 “요정의 변주”, 그리고 알리나 야르메토바의 환상적인 포르테피아노 연주 등을 꼽을 수 있다.

보리소프카촌에 «아방가르드»에 문화회관에서 출연한 민속합창단 ‘프리모로즈카’는 ‘마를 심었다오’를 불러주었으며, 알렉산드르 블리즈네초프와 안드레이 블리즈네초프의 플루트 앙상블은 훌륭한 ‘왈츠’를 연주했다. 한편 문

화대학 성악과 교수인 갈리나 오긴스카야는 두 개의 고전 화성곡인 “밤”(푸쉬킨의 시에 곡을 붙인)과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를 들려주었다. 갈리나 오긴스카야의 노래는 많은 심사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우리 시를

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국의 음악들은 마치 선별된 것처럼 독특하고도 흥미로웠다. 연해주 독립예술 공훈무용단 앙상블 “아리랑”은 자신들의 무용 ‘요정’을 보여주었으며, 우수리스크고려인문화센터의 북 앙상블은 정돈되고 정확한 연주 기법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도 관객들은 흥은숙의 한국 전통악기인 해금 연주에 놀라워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의 노래 “카튜샤”가 한국 연주자에 의해 전혀 다른 소리로 연주되었다. 이번의 내실 있고 결출한 콘서트의 마지막 출연은 대한민국에서 온 손님인, 박경화 지휘하의 ‘이천시니어’ 합창단이었다. 이 합창단은 2006년에 창설된 후 다양한 콩쿠르와 축제에 다수 참석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등지의 콘서트에 참가한 경력을 지닌 이 합창단은 자신들의 음악으로 우수리스크 시민들을 놀라우고자 이제 우리 시를



방문했다. 한국어로 부른 몇 곡의 노래가 청중들의 가슴에 다가왔으며, 관객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창단이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랐다.

이날 콘서트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음악에 만족하며 실로 경이로워했다. 1년 내내 고려인문화센터와 시의 다른 기구들

은 우수리스크 시청과 함께 고려인의 러시아 거주 150주년에 맞추어 많은 다른 행사들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 행사들이 우리 민족들을 더욱 더 연대시켜주길 바란다.

갈리나 실리나
우수리스크 사이트
‘줄로토우수리스크’



려인들은 우리 주의 동등하고도 전형적인 민족이 되었다.

이날 축제를 맞은 사람들을 향해 수많은 축사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전홍인 영사와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 니콜라이 김 등은

어냈다. 가수들은 러시아의 민족적 뿌리와 문화적 유산의 경향을 지닌 음악으로 청중들을 기쁘게 해주었으며,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온 예술을 소개해 주었다. 이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코필로바의 지휘하에 연주된 바이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



8월 3일 우수리스크시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스포츠 선수들을 만났다. 우수리스크 수비대의 장교회관 강당에서는 고려인의 자발적

러시아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태권도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대한민국, 러시아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 선발된 최고의 태권도 선수들이 모인 자리였다. 중요한 스포츠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러시아 태권도의 창시자이자 태권도축제 조직위원회 대표 겸 지도자인 최명철, 러시아 태권도연맹 회장이나톨리테레호프, 저명한 스포츠 해설자 다리야 체르보넨코, 러시아연방의 공훈 가수 마리나 채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총영사관 대표 등 저명인사들이 우수리스크를 찾았다. 우수리스크 시의회 의장 니콜라이 루디는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5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행사에 참석한 이들과 손님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그는 연해

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김 니콜라이 회장에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생산적 협력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 문화의 독창성과 민족간 화합의 분위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에 더해 가장 중요한 사실, 즉 역사적 조국과의 관계를 수립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우리 시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축제를 조직한 이들은 축제를 방문한 이들에게 세 시간에 걸친 공연을 보여주었다. 축제는 멋진 콘서트, 역사적 그림 전시, 그리고 당연히 태권도 선수들의 인상적인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고려인들의 독특한



문화 행사에 수천명의 우수리스크 주민들이 참석했다.

고려인의 자발적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우수리스크시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8월 5일에는 주민들이 손님을 반기는 우수리스크의 땅에서 ‘러시아-한국 2014’라는 자동



차렐리 참가자들을 맞이하게 된다.

‘우수리스크 시청 공식 사이트’



우수리스크 시립 운동장에서 진행된 고려인의 자발적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축제



고려인의 자발적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우수리스크 시립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연해주 제1부지사 알렉산드르코 스텐코, 우수리스크 시장 서리 예브게니코르지, 우수리스크 시의회 의장인 니콜라이루디,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 민족문제위원회 위원이자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 회장바실리 조, 대한민국 총영사 조양구, 연해주 입법의회 의원들 그리고 연해주 자치조직 대표들이 함께했다.

축제는 의식을 갖춘 행렬이 지나가면서 시작되었다. 이 행렬에는 고려인디아스포라의 대표들과 러시아와 한국의 예술단이 있었다. 특히 그 중에는 아르툠, 파르티잔스크, 나훔카, 볼쇼이 카멘, 우수리스크 소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연해주 사회조직 “연해주의 벨로루시인들”, 아르메니아인 공동체, 타타르와바시키르 사회조직, “노인단”, 극동연방대학교

사범학교 학생, “제가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런 행사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 민족과 교류하고 그들의 전통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공동의 언어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해주 제1부지사 알렉산드르코 스텐코는 연해주 주지사 블라디미르미클루셴스키를 대신하여 참석자들에 대한 환영사를 낭독했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지난 150년 동안 근면하고 능력있는 러시아의 고려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의 독창적인 문화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이고 역사적인 유산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브게니코르지와 알렉산드르코 스텐코는 연해주에 고려인의 민족문화자치회를 설립해준 것에 대해 연해주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인 니콜라이 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수리스크 시장 서리 예브게니코르지는 행사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 지역에서 축

제가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이런 행사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 민족과 교류하고 그들의 전통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공동의 언어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념일 콘서트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의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다양하고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족음식 일일 장터가 서기도 했다.

우수리스크가 고려인의 자발적 러시아이주 150주년 기념행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3월부터 9월까지 우수리스크에서는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국제 컨퍼런스, 축구와 태권도 시합 및 그 외 다양한 문화제 및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모든 기념행사는 절정에 다다랐다.

